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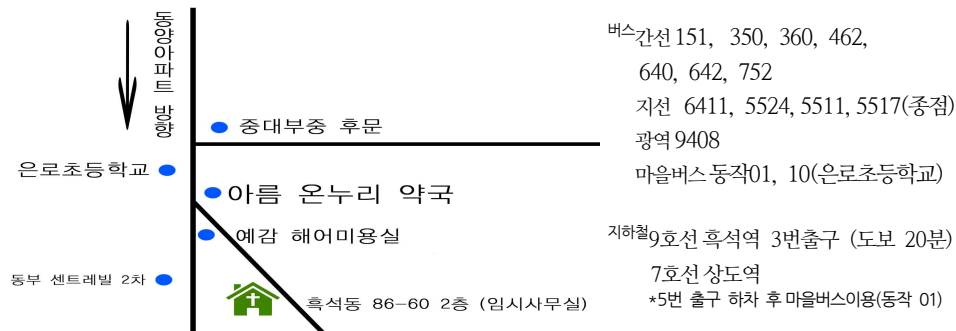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 오전 11:0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저녁기도회	월-목요일 저녁 8: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청 소 년 부	오후 1:0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 병 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 금 주 (M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조 윤 익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사무실 오시는 방법



06987 서울 동작구 서달로 110-10 2층 (흑석동 86-6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7장 (통일찬송가 27장)	
교	독 문	교독문 24번(시편 46편)	
찬	양 과 경 배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예	배 기 도	한배선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씀 봉 독	갈라디아서 4:1~11	
설	교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임춘배 담임목사)	
헌	금 드 림	김미숙 김은정 김혜선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예배장소 : 교회 사무실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씀 봉 독	바꿀 수 없는 축복 (민수기 23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전 교 인 수 련 회	장 소 : kobaco 연수원 (경기도 양평) 기 간 : 2017년 7월 30일(주일)~ 8월 1일(화) 강 사 : 원주회목사(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 회 비 : 4인기준 33만원 3인기준 27만원 2인기준 17만원 1인기준 15만원 청년 단독 8만원 바울·에스더 단독 7만원 *예배후 준비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2. 매 일 성 경 강 론	매일 저녁 8시 성경 강론과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성경 강론을 위한 참고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용과 참여를 바랍니다. (월~금 주5일)	
3. 정 오 기 도 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 배 준 비 안 내 및 정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고 청소 및 정리는 2시 30분 부터입니다. 오늘은 서초, 인천셀 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흑석셀 입니다. (정리 후에는 식당문을 잘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경강론 범위						
7/16	7/17	7/18	7/19	7/20	7/21	7/22
	민수기 21장	민수기 22장	민수기 23장	민수기 24장	민수기 25장	
※매일 저녁 기도회 : 월~목 저녁 8시(교회 사무실), 금요일 8시 30분(서울남부교회 4층)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찬송 : ‘내 주의 나라와’ 208장(통 246)

본문 : 디모데후서 1장 15~18절

말씀 : 항상 어떤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역사적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다원주의는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모르나 만인에게는 진리가 아니다’는 주관적 진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동성애와 동성혼이 버젓이 제도화되기까지 합니다.

서구는 이미 동성혼에 정복당했고 우리나라도 아직 반대가 많지만 젊은층에선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현상은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일어날 배교의 변형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배교에 물들어도 ‘남은 자’는 항상 주님의 손에 붙들려고 합니다. 바울시대에도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 복음의 철저한 박해였습니다. 로마제국의 권력이 주동이 돼 박해가 시작되자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배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수의 배교자들 가운데서도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도를 도와줬거나 반대했던 자들의 실례가 나옵니다. 이는 디모데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와 격려로 도움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로마의 한 주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가 체포되자 기독교 대의가 상실된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은 바울을 거부하고 관계를 단절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주모자였을 것입니다. 복음이 멸절 직전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훈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환대했으며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다. 그는 바울을 따르고 심지어 로마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지하감옥에 있는 그를 발견하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바울은 두 번이나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16, 18절).

오늘 우리 시대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복음을 유보하고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변질된 복음을 강요받거나 유혹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패케 하는 모든 세력에 맞서 지키며 또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갈4:1-11)

서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라는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1. 아들의 신앙

- (1)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교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 (2)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 (3) 이 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써 유업을 받을 자로 살아야 한다.

본론

2. 교훈

- (1) 초등학교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말라.
- (2)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지 말라.
- (3) 아들의 특권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라.

결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한배선 장로	김대희 장로
헌 금 위 원	김미숙 김은정 김혜선	김미숙 김은정 김혜선
안 내	서초, 인천셀	흑석셀

매일 성경 강독		불땀과 눈땀	날짜 : 7월 17
찬양 통독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통일 찬송가 214장) 민수기 21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을 이기게 해달라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곧 힘든 행진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백성에게 불땀을 보내시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장대 위에 매단 눈땀을 쳐다본 사람들을 살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진행해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으로 옮겨 갑니다. 거기서 계속 진행해 하나님이 우물물을 솟아 나게 하셨던 브엘을 지나 맛다나, 나할리엘, 바못, 모압 골짜기,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릅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방해하고 공격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모든 성읍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기			
1	불땀과 눈땀 사건 (1) 백성들은 가까운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하여 멀리 남쪽길을 돌아가게 되자 불만이 쌓였다. (2) 남쪽길은 식물이나 물이 없을 만큼 매우 척박해서 다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3) 하나님께서 불땀을 보내어 원망하는 백성들이 물려 죽게 했고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기도로 눈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 (4)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눈땀은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요3:14,15). (5)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여 은혜로운 회복을 주심		
2	전진하는 이스라엘 (1) 눈땀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가나안을 향해 행군함 (2) 가까운 에돔 땅을 포기하고 명령에 따라 남쪽길로 오봇, 이에아바림, 세렛 골짜기, 아르논 건너편, 브엘, 맛다나, 나할리엘, 바못, 모압 평야를 거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진을 치 (3)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기갈을 해결하도록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게 하심 (4)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축이 적셔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궁극적인 승리의 보증이 된다.		
핵심 단어	불땀들(네하심 세라핌) - 문자적으로는 '불 붙은 땀'이란 뜻이다. 여기서 '불 붙은'이란 형용사는 당시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광야 지역(특히 아라바 지역)에 많이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로서, 등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일컫는 표현이다. 그와 함께 이는 그 뱀의 맹독성을 강조한 말이라 볼 수도 있다. 즉 그 뱀에 물리게 되면 그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 즉시 운명에 높은 열이 생기며 죽어가기 때문에 붙여진 말일 것이다. 한편 원어상 '불땀'이란 말 앞에 정관사 '하'가 붙은것은 그 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종류이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도구였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거룩함을 위한 싸움”
찬양과 기도	주 다스리네 /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통 401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파블로 피카소(1881~1973년)는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본질’을 담고자 애썼습니다. 그는 보이는 외형에 현혹되어 그저 현실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라이든 사물이든 그 존재의 본질에 천착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대상물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벗겨 버릴 때 예상치 못한 민낯을 보게 되기도 했지만, 그 모습을 사물의 본질이라 여기고 그렸습니다. 결국 그의 그림은 점점 더 단순해져 황소의 그림은 소의 골격과 뿔만 남았습니다. 아비뇽의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일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 폭격으로 풍비박산이 난 스페인의 마을 게르니카를 묘사한 그림은 비명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때문에 사물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정보의 양보다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과 욕망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욕망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면, 본래 그 사람이나 사물 혹은 사건이 갖고 있던 본질은 왜곡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순종하기 어렵게 됩니다. 복잡한 주변 정보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기억하고 충실히 살아가나요?	
말씀 나누기	민수기 31:13~24	
묵상포인트	하나님이 명하신 본래 목적에 충성하는 것이 바른 삶의 비결입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 있는 영적·육적 음란의 죄악을 뿌리 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이 모세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서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씻음으로 날마다 죄에서 돌이키며, 정결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 가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은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에게 어떤 의식을 행하도록 명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적용하기	오늘날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최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되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리는 반쪽 순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소서. 작은 더러움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정결케 되기를 힘쓰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비느하스의 열심		날짜 : 7월 21일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통일 찬송가 193장)			
통독		민수기 25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 백성은 싯딤에서 모압 여зал들과 음행하며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음행하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이자 염병이 멈춥니다			
생각해보기					
1		바알브을 음행사건 (1)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과 발람의 계획이 실패하자 재물과 명예를 놓고 싶지 않았던 발람은 내적 타락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혼란시키도록 발락에게 조언했다(민31:16). (2) 싯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개입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 (3)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행한 백성의 수령들은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처형하도록 말씀하셨다. (4)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염병을 내리셨지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분에 찬 행동을 보시고 노를 돌이키셨다. (5)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 책임과 형벌 또한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육간에 거룩함에 힘쓰자.			
2		미디안족 공격명령 (1)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한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하여 복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2) 훗날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하며, 그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함(민31장) (3) 미디안은 모압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최악의 길로 유혹한 대가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함 (4) 성도를 대적하고 죄 짓도록 유혹하고 박해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5) 성도는 최악의 길로 유혹하는 것들을 눈앞에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핵심 단어		비느하스가...일어나 - 여기 '비느하스'(Phinehas)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로서, 후일 아론과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다. 한편 여기서 '일어나다'의 히브리어 '쿰'은 '자리를 박차고(결연히) 일어나다'란 의미로서, 그 당시 비느하스의 불타는 의분과 의지를 대변해주는 말이다. 이처럼 하나님 영광을 수호하는 일에 결연히 일어서는 그 도전 의식이야말로 거룩과 의를 모토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발람과 그 나귀	날짜 : 7월 18일
찬양 통독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통일 찬송가 395장) 민수기 22장		
본문 내용	모압 왕 발락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일을 보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몰아내려고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거듭 요청하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기로 하고 길을 떠납니다. 발람의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결길로 피해 가자,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을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와 사자를 보게 하신 후에야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만 말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먼 곳까지 나와 발람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생각해보기			
1	발락과 발람 (1)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자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 발람을 초청함 (2)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의도를 꺾으려 하심 (3) 발람은 첫 번째 초청은 거부했지만 물질과 명예를 주겠다는 발락의 강력한 두 번째 초청을 과감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가던 도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경고하심을 듣게 됨 (4) 사단은 할수만 있으면 세상의 권력과 물질 등을 동원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핍박하려 하므로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5)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움직이는 발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된다.		
2	발람의 불의한 행동을 통해 본 교훈 (1) 재물과 불의의 삿을 탐하지 말자(벧후2:15; 약1:15) (2)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자(시13:3) (3)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자(롬12:2) (4)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자(삼상15:22,23) (5)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치 않도록 하자(신32:9,10) (6)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어 불의한 길로 인도하지 말자(계2:14)		
핵심 단어	발람 (Balaam) -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뜻의 이름으로서, 묘하게도 물질에 현혹되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 했던 그의 성격 및 행적과 조화를 이룬다. 발람은 거듭되는 여호와와 경책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 발락의 요청을 이루려 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음행케 하여 몇몇을 멸망시켰고, 결국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 일로 인해 그는 '불의의 삿을 탐낸 탐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던 선지자'등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바꿀 수 없는 축복	날짜 : 7월 19일
찬양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통일 찬송가 487장)		
통독	민수기 23장		
본문 내용	발람은 일곱 개의 제단을 만들어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말씀대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에 발락 왕은 진노합니다. 발락 왕은 발람을 다시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생각해보기			
1	발람의 예언 (1) 발람은 발락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축복함 (2) 발람의 첫 번째 예언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①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8) ②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8) ③홀로 처하지 않을 자(9) (3) 발람의 두 번째 예언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①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보시지 않으실 자(21) ②하나님이 그의 반역을 보시지 않으실 자(21) ③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21) ④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는 자(21) ⑤힘이 들소와 같은 자(22) ⑥암사자같이 일어나는 자(24) ⑦수사자같이 일어나 움킨 것을 먹는 자(24) (4)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해하려는 악인의 계획은 결코 성공할수 없으며 우리에게 비록 유혹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됨을 믿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자.		
2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1) 거짓말을 하지(식언치) 않으시는 참된 축복 (2) 후회 없는 견고한 축복 (3)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는 축복 (4)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자.		
핵심 단어	후회가 없으시도다 - 여기서 '후회하다'(이트네함)란 '한숨쉬다', '동정하다'는 뜻의 '나함'에서 파생된 말로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 전의지적으로 깊이 뉘우치는 상태를 가르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경륜에 있어서 털끝만큼의 후회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당신이 계시하신 것과 언약하신 것 등에서도 이러한 진실성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그러나 여기서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은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을 저버린 채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우려나오는 고통으로써의 후회까지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때의 후회는 결코 원망과 자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순수하고 깊은 사랑의 또다른 감정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하나님의 계획	날짜 : 7월 20일
찬양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통일 찬송가 415장)		
통독	민수기 24장		
본문 내용	발람은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행하심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발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축복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발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미래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는 모압,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아말렉, 가인(겐), 앗수르, 갓딤 해변 민족이 잠시 흥왕하지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생각해보기			
1	계속되는 발람의 예언들 (1)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세 번째 예언: ①이스라엘의 영광스런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 노래 ②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2)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네 번째 예언: 야곱에게서 한 별과 규이 나와 결국 이스라엘이 모압과 에돔을 쳐부수고 승리하게 되리라 (3) 발람의 마지막 예언: 아말렉이 멸망하고 가인 족속이 점점 쇠약해져서 앗수르의 포로가 되고 앗수르와 에벨이 멸망할 뿐 아니라 그들을 괴롭힌 자들도 망하게 되리라 (4) 이 세상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5)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의해 보존되는 존귀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는 악인의 끈질긴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		
핵심 단어	발람이...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 이 말은 실제 발람이 400마일(약 640km)이나 되는 먼 자기 고향으로 곧장 되돌아 갔다기 보다는 발람이 자기 고향쪽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의미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이후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발람은 예언 직후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않고, 자기를 발람에게로 인도해 왔던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미디안 땅으로 갔던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사악한 죄를 발락에게 일러줌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주(심판) 받도록 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후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에 그는 미디안 다섯 왕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